

친환경상품 개발애로, 온라인에서 해결

- 친환경상품 개발 애로기술 실시간 해결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

□ “Green”을 선호하는 최근의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친환경상품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 기술표준원은 친환경상품 개발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온라인(on line) 애로기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늘부터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이제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실무 담당자와 애로기술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제품개발에 필요한 20,000여건의 관련 특허 및 기술정보와 각종 선비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용방법은 산업자원부 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터 홈페이지(<http://recycling.ats.go.kr>)에 접속, 상담 메뉴의 “지원업무”를 선택하면 됨.

□ 기술표준원은 '99년부터 지금까지 친환경상품 개발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기술지원 및 관련 정보 보급을 추진해왔으나, 이번에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 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개방실험실 운영 및 현장방문을 통해 268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32건의 국가인증마크 획득을 지원하여

해당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아울러 26회 1,820명에 대해 친환경상품 개발기술 교육도 실시하여 기술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자동차 내장용 시트(sheet, 도아·트렁크 트립류) 개발업체인 K기업의 경우, 애로기술 지원을 통해 신재(新材)로 제조한 제품과 비교시 90% 이상의 품질 확보가 가능케 되어 2.5배의 생산성 향상과 30여억원의 매출액 증가 효과를 가져왔음

○ 이번 온라인 애로기술 지원시스템 구축은 7월 1일 시행 예정인『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에 앞서, 정부가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 뿐 아니라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현재의 애로기술 지원 이외에도 친환경상품을 개발코자 하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친환경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사업도 한층 강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인체치수표준정보의 산업·복지 응용 정책 추진

□ 국내 제조업체 각 분야별 매출 상위 5위 이내 기업 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체의 인체측정자료 수요 및 활용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품 디자인시 한국인의 인체측

정 자료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구, 자동차, 신발 제화 산업의 경우 제품 디자인시 외국의 인체측정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활용은 저조

- 한편, 안경, 헬멧, 모터사이클, 자전거 산업의 경우 제품 디자인에 한국인 인체표준정보를 거의 활용을 안 하는 실정

- 가구업계 (90%), 의류업계 (50%), 신발 제화업계 (30%), 자동차 업계의 일부가 자체적으로 인체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으나, 인체측정 방법에 있어서 표준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자료의 활용에 한계가 있음

□ 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체형에 맞는 제품생산을 통하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국인 인체치수표준정보의 산업계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한국인 인체치수 및 인체형상 자료를 기초로 한 감성공학적 제품 디자인 기술지원을 위해 의류용 너미 개발 등 20여개 활용촉진 사업을 추진

- 안경, 헬멧, 보호장구, 헤드셋 등 한국인의 체형을 반영하지 못한 디자인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 머리 형상자료 확보를 위한 측정조사를 실시

- 또한 고령자도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복지국가기반확충을 위해 연내에 고령자 특성자료 확보를 완료하고, 실버 제품설계에 적용할 계획

□ 한국인의 인체치수표준정보 이용방법 (붙임2 참조)

- 홈페이지 (<http://sizekorea.ats.go.kr>) 이용

한국인 인체치수 통계자료, 표준인체 측정법, 활용기술, 79년 이후 국민표준체위조사자료 등 기초자료 검색

- 인체표준정보실을 직접 방문 • 이용

- 기업 • 일반인은 인체정보 연람, 자료 통계 처리 서비스, 활용기술 이용, 인체정보 교육 서비스 이용

- 정보 활용능력이 저조한 중소기업체는 인체표준정보 이용신청 및 공동연구제도 등을 이용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쉽게 활용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최첨단 기술에 의한 측정장비 사용

3차원 인체스캐너 등 인체측정장비 사용, 임대 서비스

- 일반인에게도 인체치수 및 3차원 인체형상 측정 체험 서비스 실시



(붙임2-한국인의 인체치수표준정보 이용방법)

자동차부품 신뢰성 인증, 독일에서도 인정

- 자동차부품연구원, 독일 TÜV 라인란드와 상호인증 체결 -

- 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국내 신뢰성 인증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부품·소재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일환으로 자동차부품의 신뢰성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연구원이 독일의 대표적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Rheinland)와 신뢰성 Mark의 상호인증 등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05.2.28)하였다.
- 급변 자동차부품분야의 상호인증 체결은 우리나라에서 받은 자동차부품의 신뢰성인증(R mark)을 독일의 TÜV 라인란드에서도 인정하게되어 유럽 시장에서 인지도 제고는 물론 수출 증가도 기대.



- TÜV는 독일의 130년된 기술검사협회로서 세계 45개국 3만여명 이상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검사·인증기관으로, 자동차부품 분야 신뢰성 인증 결과를 우리나라와 상호 인증한 것은 국내 최초이며, 자동차부품연구원은 '04년 5월부터 TÜV와 논의를 시작하여 이번에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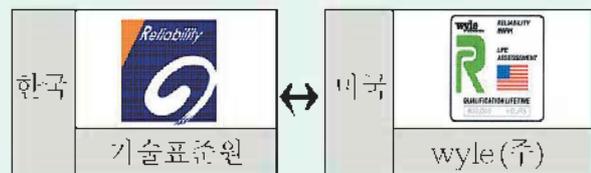
- 이번 협약 체결은 국내 신뢰성 평가기관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신뢰성 인증서'로 TÜV의 TÜVdotCOM인증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이로써 국내 기업이 'TÜV'의 인증서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비용(1천만원→1백만원)과 시간(6→1개월)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독일, 유럽 및 세계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미국과 기계류 부품·소재 신뢰성 상호인증

- 한국기계연구원, 美 Wyle Lab.과 상호인증 체결 -

- 우리나라 기계류 부품·소재의 신뢰성이 미국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한국기계연구원은 미국의 대표적 시험기관인 와일리 연구소(Wyle Laboratories, Inc.)와 국산 기계류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 인증'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을 '05.2.14 체결하였다.
-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신뢰성 인증(R mark)을 받은 기계류 부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일리 연구소가 실시한 신뢰성 인증과 동등하게 평가되어 미국 시장에서의 인지도 제고는 물론, 수출 증가도 기대됨.



11 미국과 기계류 부품·소재 분야 신뢰성 인증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것은 국내 최초이며, 기계연구원은 '02년 8월부터 미국 최대의 시험기관인 와일리 연구소와 논의를 시작하여 이번에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 이번 협약 체결은 국내 신뢰성 평가기관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신뢰성 인증서'로 미국 와일리의 신뢰성(R-Mark)인증서도 받을 수 있게 됨

○ 이로써 국내 기업이 '와일리'의 R mark 인증서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비용(2~3천만원)과 시간(6~12개월)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내수지역 및 세계시장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기술표준원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부품·소재의 품질과 기술력 제고를 위해 '신뢰성 향상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주요 핵심부품·소재 301개 품목을 신뢰성 평가대상으로 지정하고 평가장비 구축 지원 및 평가기준을 제정하였고, 세계 일류 평가기관과의 상호인증과 국제협력사업도 추진해 오고 있다.

- 지금까지 국내 평가기관이 독일 등 3개국 3개 기관과 상호인증 협정을 체결하는데 3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4개 기관과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음

- 총 120개 인증제품 업체의 국내·외 전문전시회 참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NT·EM 인증제품의 판로 개척 및 수출 증대 도모 -

○ 기술표준원은 금년에 신기술, 우수품질 및 환경선미품질 인증제품의 수요확대 기반조성을 위하여 총 120개 인증제품 업체의 국내·외 전문전시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국내 한국냉동공조위생설비기자재전 등 7개와 해외 하노버산업박람회 등 3개 전문전시회에 출품을 지원하기로 하고 특히 금년에는 업체들의 참가선호도 수요조사를 거쳐 10개의 단체참가 전시회를 선정하여 집중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인증제품들의 수준시장 개척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KOTRA 등 타 기관의 해외 전시회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함

○ 국내 단체참가 전시회 중 10개 이상의 인증제품 업체들이 참가하는 한국기계전, 국제환경기술전, 국제상하수도전시회, 정부조달우수제품전 등에는 인증제품업체들이 단체관을 구성하여 인증제품들의 홍보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전문전시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각종 기술세미나에 정부 신기술 인증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기술표준원은 단체참가 전시회 이외의 타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인증제품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홍보용 인증마크 액스 배너 등을 무료로 제작/지급할 예정이다.

신기술·우수품질 인증제품 업체 전문 전시회 참가지원

II 전시회에 참가하는 인증 업체들 중 중소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며,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임차료 및 장치비 등 직접참가비용을 작년 대비 95% 상향, 해외전시회의 경우 49% 상향 지원하기로 하였다.

C 국내 단체참가 전시회

- 지원 업체 수 : 100개의 인증제품 업체
- 지원 내역 : 임차료 및 장치비 경비의 일부
- 선정 전시회 및 개최기간
 - 정부조달우수제품전 : 3. 24 ~ 3. 27
 - 한국냉동공조위생설비기자재전 : 5. 25 ~ 5. 27
 - 국제환경기술전 : 6. 13 ~ 6. 16
 - 국제광산업전시회 : 9. 6 ~ 9. 9
 - 한국기계전 : 10. 26 ~ 10. 30
 - 국제상하수도전시회 : 11. 8 ~ 11. 11
 - 국제우수전기제품대전 : 11. 24 ~ 11. 27

C 해외 단체참가 전시회

- 지원 업체 수 : 20개의 인증제품 업체
- 지원 내역 : 임차료, 장치비, 운송료 및 통역 안내 경비의 일부
- 선정 전시회 및 개최기간
 -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 4. 11 ~ 4. 15
 - 상해국제삼유기계전시회 : 6. 3 ~ 6. 7
 - 독일뒤셀도르프의료기기전시회 : 11. 16 ~ 11. 19

II 국내적으로 인증제품들의 홍보를 통한 수요 기반 조성으로 수입대체 효과를 증대 시키고, 국외적으로 전시회 참가에 따른 현지상담, 수출계약 및 현지대리점 개설로 수출기반 확보 및 수출증대를 꾀하며,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인증제품의 마케팅 지원으로 업체들 시기진작이 기대된다. 

